

일 주 문

영담스님 거례의술 대표 선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3월 17일 북한산립북화지원민간단체인 '거례의 술' 제5차 정기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은혜사 합동방생법회
영천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은 3월 13일 본말사 스님, 신도 2000여 명과 함께 해남 대흥사에서 합동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불교기자학교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3월 31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6시부터 12회에 걸쳐 조계사 불교기자학교를 개최한다.

상도선원 2주년 봉헌법회
서울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3월 20일 상도선원 개원 2주년을 맞아 봉헌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부산서부중무원장 지만 스님
부산 약수정사 주지 지만 스님은 3월 11일 부산 윤천장 더파티부에서 태고종 부산서부중무원장에 취임했다.

서울 명락사 36주년 기념법회
서울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은 3월 13일 명락사 3층 법당에서 3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레렐 제6회 찬불음악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6회 찬불음악제를 개최한다. (02)738-7860

동국대 김희옥 총장, '청초 근정훈장' 수상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3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청초 근정훈장'을 서훈받았다.

부산 불교여성개발원 김수현 이사장
김수현 사회복지법인 선양 이사장은 3월 18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신임 부산지원장으로 취임했다.

체육인불자聯, 불자체육인장학금 전달
이기흥 체육인불자연합회장은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유도 김효준 선수 등 10명에게 불자체육인선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젊은 불교, 청년들 모여라

청년공동체 YOUNG108 김도윤 초대회장



김도윤 회장

“청년 불자들은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가치창조를 통한 사회참여를 해야 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부속기관인 'Young 108' 초대회장에 2월 26일 창립총회에서 김도윤 씨를 선임했다. 김도윤 회장(사진)은 취임 소감에서 "청년 불자들과 함께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는 이데올로기를 찾고 의식 있는 젊은이로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Young 108은 올해 취임한 불교여성개발원 김애주 원장이 청년 불자 발굴, 지도자 창출 및 양성 등을 목표로 구성된 청년 공동체다. 20~40세 청년 불자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젊은 불자들 간 생각을 나누고 결속력을 다지게 된다.

회원들은 사회과학, 경영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문화, 예술 등 분야별 인재들이 각계 자문위원으로부터 멘토를 받고, 자문위원들의 강연 및 세미나, 토크 및 자문위원의 멘토링, 동기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경쟁력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활동한다. 불자로서 불교철학에 대한 스토리는 물론

명상 수행, 봉사활동 등을 통해 영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로서 되기 위한 수행과 봉사활동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도자로서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를 양성하게 된다.

김도윤 회장은 Young 108의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서 "불심이 깊은 각 분야의 차세대 리더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좁게는 한국불교문화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넓게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나아가 할 비전을 제시하여 이를 전파, 실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유대교의 탈무드는 종교신념을 초월하여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필독서가 된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불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을 우선 추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나 이벤트 기획이 아닌, 콘텐츠 생산을 위한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최근에는 Young108 네이버 카페에서는 해외 입양이나 노숙인 등에 관한 논의의 장도 펼쳐졌다. 하지만 회원 중에는 "이렇게 젊은 불자들이 모인 것만으로도 대단하니,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친목도모를 서둘러야 한다"며 무겁고 딱딱한, 어려운 주제라서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데올로기나 노블리스 오블리주 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에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김도윤 회장은 이를 때 마다 '20~40대 연령층의 젊은 불자들을 모아, 서로 도반이 되어 진리를 터득하게 하고,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로 발굴·육성한다'는 창립취지를 되새긴다.

"자칫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 주제에 관해서

도, 만약 자신이나 주변에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 겪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정서적 온도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이가 많다고 해서 불교가 젊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교 자체가 젊어져야 한다. 김 회장은 "젊은 불자들이 없는 것 같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불교를 주제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단지 그들에게 함께 고민할 화두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청년 불자들에게 화두를 제시해야 한다. 화두가 젊은 불교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저는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하게 Young 108 회원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한 명의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번 한 번 한 번의 열정적이고 독창적인 음색이 아름다운 108 하모니를 이루어 우리 사회를,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연 기자

대외국어고어 서반어고어 졸업
고려대 경영대학 졸업, 경영학사 (94학번)
삼성전자(주) 인사그룹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종위
삼원실업(주) 전략기획실 실장
발간시집 Cult (1995년), Jukebox (1998년)
ISO/IEC 15504 국제표준 예비심사원
YNC(Young Noblian Club) 회장
고려대 교우회 상임이사

동국대 경주캠,
일념장학금 전달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3월 15일 교내 100주년기념관에서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일념장학회 장학금은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일념장학회가 조계종 총무원, 통도사, 불광사, 내원정사, 운문사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이날 22명의 학생에게 총 22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영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했던 경봉 스님의 가르침과 뜻을 받들어 불교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왔다. 장학수혜자 여러분은 학업에 더욱 매진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훌륭한 인재가 되어 국가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안정불교대학,
제 1회 졸업식 개최



태고종 청련사 안정불교대학이 첫 번째 졸업생 54명을 배출했다.

양주 청련사 안정불교대학(학장 백우)은 3월 14일 청련사 대적광전에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안정불교대학 졸업식 및 2011학년도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백련사 회주 윤경 스님, 태고종 총회회장 자월 스님 등 전현직 태고종 주요 소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안정불교대학은 청련사를 본교로 2009년 설립돼 대구와 광주에 분교를 두고, 2년 과정의 범음법백반과 경전강의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첫 졸업·입학식에서는 신입생 35명이 새로이 입학해 기쁨을 더했다.

안정불교대학장 백우 스님은 "옛말에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人不學不知道)고 했다"며 "진정한 도의 이치를 배우고 닦아 인격완성을 통해 불자로서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브리야트불교, 한국불교 교류 절실해요”



리젠 라마

“한국불교의 승가교 육제도와 불교 미디어·인론 및 수행환경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브리야트 불교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브리야트의 불교교류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브리야트 자치공화국의 예시예프 세르게이 리젠 라마(사진·Eshiyev Sergey Rigzen lama·38)가 한국불교와 공식 교류를 희망하며 3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조계종의 공식초청을 받지 않고 인사가 총무원을

들른 것이라 조계종 스님들과의 교류는 없었지만, 리젠 라마의 방문이 향후 러시아 내 자치국들과 한국불교간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브리야트 공화국은 44만 여 인구가 사는 나라로 전체인구의 70%가 티베트 계통의 종교인 라마불교 불자인 불교국가다.

리젠 라마는 브리야트 공화국 불교연합(Union of Buddhist of Buryat Republic)의 부회장으로 현재 브리야트에 사찰(Ivolginsky Dachen)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국 불교교단이 체계적인 승가제도와 수행 프로그램, 교육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접하고 한국불교와의 교류가 시급함을 깨닫고 칼미크, 투바 등 주변 자치공화국의 불교계와

협회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

리젠 라마는 “브리야트에서도 한국기독교 단체들의 물지각한 선교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부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브리야트 불교는 사머니즘과 자연종교적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 브리야트 정부가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영적 수행과는 멀어지고 있다”며 “국력과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영적 수행이 없으면 안된다. 브리야트 불교의 발전과 러시아 불교 등의 부흥을 위해 한국과의 교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브리야트는 남시베리아 바이칼호수 주변에 위치한 곳으로 남쪽으로 시안 산맥을 두고 몽골과 접해있다. 주요종교는 라마불교와 사머니즘이다. 이나은 기자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
승왕청 임명식 및 스리랑카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총정석인왕 크스님, 스리랑카 시암총 증정 아사기리 크스님,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크스님, 태국 제 카타판노 크스님, 스리랑카 아미라푸라 쇼바 크스님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세계불교승왕청

총무원 대약사사: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삼리 산71번지
TEL: (043) 731-2261 FAX: (043) 731-6453 회주: (043) 731-6454
본산 약사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 2동 산 7번지
TEL: (031) 734-3205 FAX: (043) 735-3374 회주: (031) 747-8303

세계평화 · 남북통일기원 · 국가발전 · 가정만복기원

세계 고승과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석인왕 크스님께서 증명하시고 전개함으로써 수승한 인연을 맺고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증흥을 위한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 및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본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에서는 해동신라의 원효 성사가 경찬하신 묘법의 현의와 고려 제관법사가 전하신 법화의 종지를 계승하여 의천대각국사께서 수립하신 전태종을 정통 종문을 계승하여 현재에 이르러 인왕 크스님을 중정으로 전통적인 계법을 이어받았다. 한국불교 증흥을 위한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여러 중도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1부 (오전 11시)
- 승왕청 임명식 및 스리랑카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
2부 (오후 13:30시)
-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

- 1. 일시: 불기 2555년 음 3월 7일 (양 4월 9일) 토요일
2. 장소: 총본산 금강 대약사사
3. 문의: 총무원 금강대약사사: TEL 043)731_2261
본산 성남 약사사: TEL 031)734_3205